

## 초등학생의 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 행동문제 간의 관계구조 분석\*

최 은 실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정 선 아†

서울시아동사회복지시설 동작아이준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간의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 능력, 그리고 행동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여,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 및 개선할 수 있는 치료적 접근 방법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대구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327명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아동후기인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애착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 행동문제 각각의 특성과 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아동기의 적응상의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능력의 직·간접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AMO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은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또래관계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착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착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을 매개하여 아동의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애착, 정서인식, 정서표현, 또래관계, 행동문제, 매개 모형

\* 본 연구는 경일대학교 신입교원연구지원비로 진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선아, 서울시아동사회복지시설 동작아이준, E-mail : firstnun@naver.com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대인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와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신현균, 2010). 특히 아동의 경우 최근 들어 과잉행동, 충동성, 엽기적인 공격성, 도벽과 같은 문제행동과 우울증, 불안증, 강박 성향 등의 정서문제의 발생빈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동문제의 출현 빈도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전국 94개 초등학교 7,700명에게 실시한 2006년 상반기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는 25.8%가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과 같은 내현화 문제와 반항 및 난폭행위 등의 외현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7). 미국 교육부에서는 2002~2003년 동안 6-21세의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8.1%가 행동문제(정서행동문제)를 보인다고 발표 했으며, 이것은 행동문제가 4번째로 큰 장애 범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행동문제(행동장애)의 출현율이 21%로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Yell, Meadows, Dragow, & Shriner, 2011; Forness & Kavale, 2000에서 재인용)

행동문제란 아동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가면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나 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홍경자, 1986), Kauffman(1993)은 행동문제를 학문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적 수행에 있어서 아동에게 적합한 나이, 문화, 인종적, 규준에서 벗어나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반응으로 보고,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즉, 아동의 행동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감정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미현, 1996).

아동의 행동문제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문제, 가정불화, 약물중독, 폭력, 자살 등의 심각한 부적응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Knapp, Almond, & Percudani, 1999). 그러므로 아동기의 행동문제가 심각한 정신건강 위협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행동문제의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기울인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고 문제를 겪는 학생의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어(Merrell, 2010), 행동문제가 심각해진 후에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반응적 개입보다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적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동기 행동문제의 관련변인에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아동기라는 연령변인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대표적인 수 있으며, 애착 안정성의 중요성은 많은 이론적 기반과 실제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동물행동학적 입장에서 동물의 경우 태어나 얼마 되지 않은 새끼는 어미에게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어미도 역시 새끼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둘 사이에 강한 애착이 형성된다고 본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낳아서 길러주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넘어서 생의 전반에 걸쳐 심리 정서적, 사회적, 행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찍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주 양육자와 영아의 결속력은 음식을 제공하는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추후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생물학적 영향을 넘어서 유아에게 신체,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owlby, 1982).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자신에 대한 표상과 타인 즉, 세상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표상들은 이후의 그 사람의 정서, 행동,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작동모형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응적, 수용적, 그리고 지지 적이라면 이 아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느끼거나 대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과 힘겨운 투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Steel & Steel, 1998).

또한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내적작동모형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 애착 대상, 세상에 대한 긍정적이고 신뢰로운 표상은 건강한 발달 경로를 따르게 하지만, 적대적이고 부정적 표상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인지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병리적 발달 경로를 밟게 한다(Sable, 2000). 이와 같이 아동기의 행동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부모와 아동의 관계이다. 아동기에 부모-자녀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면 아동의 정서, 사회적 능력은 저하되고 행동문제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Lamb, Thompson, Gardner, Charnov, &

Connell, 1985).

다음으로 행동문제의 관련변인으로 중요한 변인은 정서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서능력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다. 정서 능력이 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어 왔다. 자신의 정서에 대해 잘 인식하는 개인은 자율적이고 좋은 자아경계를 가지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며,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최은실, 방희정, 2010; Kring, Smith, & Neale, 1994에서 재인용).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고 조절하여 표현하는 능력은 공격성과 높은 부적 관련성이 있고, 이것은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Zaman & Garber, 1996), 또한 정서를 조절되지 못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외현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인 상황의 발생을 줄이며, 정서인식 및 조절된 표현 능력은 공격성, 위축, 불안과 같은 부적응 적 행동 문제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손지영, 2003; 한유진, 2006).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사회성 기술이 있는데, 사회성 기술이란 아동이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주어진 상황의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허수연, 강수연,

정정은, 박지연, 2010; Kerr & Nelson, 2006에서 재인용). 사회성 기술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또래 및 의미 있는 성인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대인관계 문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우울, 불안과 위축 등은 사회성 기술의 습득 및 수행 결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의 결함을 가진 아동은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또래와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어렵고 정서 및 행동문제의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Farmer & Cadwallader, 2000).

지금까지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련변인들(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와 이들이 행동문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아동의 정서 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주 양육자가 아동이 표현하는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인정해주고 수용한다면 아동의 정서 인식 및 표현 능력은 적응적으로 발달할 것이다. 반면에 아동의 정서를 무시하거나 억압한다면 아동은 정서를 이해하거나 조절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Cassidy, 2008). 애착의 패턴과 정서 패턴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적 욕구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할 때, 아동은 애착 대상이 자신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음에 대한 우울과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 애착 시스템 자체를 작동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며, 결국 친밀

한 관계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또한 주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적 욕구에 비 일관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아동은 애착 대상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과장시켜 반응하게 되고 결국 과민한 정서 반응 패턴을 발달시키게 된다(Shaver & Mikulincer, 2010).

반면, 안정 애착을 가진 아동은 불안정 애착 아동보다 더 많은 정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또한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도 더 많이 표현하는데(Cassidy, 2008), 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애착의 안정성 여부는 정서 능력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은 대인관계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며(Elicker, Englund & Sroufe, 1992),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 안정 애착아들은 대인관계에서 공감과 배려와 같은 사회성 기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요인들은 애착의 심리 내적 요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Cohn, 1991). 즉, 지지 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반응은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틀을 제공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더욱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다(Weinfield, Sroufe, Egeland, & Carlson, 1999).

마지막으로 '정서능력과 사회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

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Salovey, Brackett, & Mayer, 2004). 또래와 갈등이나 의견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한유진, 2006). 또한 정서를 조절된 형태로 표현하는 능력은 사회적 지지를 얻는 역할을 하며, 정서 표현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은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화, 1997).

이처럼 적절한 정서인식과 표현은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긍정적 대인관계가 다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Nowicki & Duke, 1994; 권진희, 2006). 자기가 느끼는 정서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자신의 내적, 상황적 요구에 맞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이는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 노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은 의사소통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지를 가용하게 하여 적응을 돕기도 한다(최은실, 201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불안정한 애착이 행동문제의 어려움을 유발 및 유지시키지만 행동문제의 핵심적인 기제인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 및 또래관계능력이 행동문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애착과 정서능력, 또래관계, 행동문제가 서로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 네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

계기술, 그리고 행동문제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고, 그 인과관계를 예측하여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예방 및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명 및 통제하기 위해 이를 관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변인이 되는 환경 변인으로 부모의 애착안정성을, 개인 변인으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을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설정한 뒤, 이들 잠재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애착 안정성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학령기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애착 안정성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 대구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 359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중에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 즉시 수거하도록 하였다. 총 359명 중 32명의 자료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32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년은 5학년 179명(54.7%)과 6학년 148명(45.3%)이었고, 성별은 남학생 137명(41.9%)과 여학생이 190명(58.1%)이었다.

#### 측정도구

##### 애착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

본 검사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 본으로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써 상호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척도를 제외하고 부모의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애착 척도는 각각 25문항으로 문항으로, 신뢰 차원은 아동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 반응의 안정성을, 의사소통 차원은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며, 소외 차원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를 향한 분노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 개념을 통합한 총점으로 분석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 형 5점 척도로서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역 채점을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정(1998)에서 내적 합치 도는 부에 대한 애착이 .93, 모

에 대한 애착이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부에 대한 애착이 .93, 모에 대한 애착이 .92로 나타났다.

##### 정서 인식 및 표현 척도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 EESC)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도구로 Penza-Clyve와 Zeman(2002)이 개발한 EESC(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을 최은실(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9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시기는 아동 중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정서 조절 패턴의 개념이 발전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연령대이다(Cole & Kaslow, 1988; Penza-Clyve & Zeman, 2002).

본 척도는 명확한 정서인식과 표현의 2가지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형 척도로, 정서인식의 부족 요인 8개 문항과 정서 표현의 어려움 요인 8개 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 인식의 부족 문항으로는 문항 9 '나는 종종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문항 15 '나는 내가 화난 이유를 종종 잘 모른다.' 등이 있으며, 정서표현의 부족 문항으로는 문항 7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다', 문항 16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이 힘들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에서 가장 먼 것 까지 5점 척도 방식('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은실(2010)에서 내적 합치 도는 정서인식

부족 요인이 .78, 정서표현 부족 요인이 .69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는 정서인식 부족 요인이 .78, 정서표현 부족 요인이 .79로 나타났다.

#### 또래관계척도

본 검사는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초등학생 4학년에서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총 19문항으로 주도성과 협동/공감의 두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도성 요인으로는 문항 3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놀이를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말한다.', 문항 4 '처음 만난 아이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 등이 있으며, 협동/공감 요인으로는 문항 11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놀 때, 게임이나 놀이 규칙에 대한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문항 19 '게임이나 운동, 놀이의 규칙을 지킨다.' 등이 있다. 각 행동의 빈도를 묻는 4점 척도 방식(' 전혀 없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 도는 .74-.8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는 주도성 요인이 .85, 협동/공감 요인이 .83으로 나타났다.

#### 행동문제척도

본 검사는 아동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3점 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시사한다. 내적 합치 도는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에서 .62에서 .82까지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행동, 신체적 증상, 그리고 위축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내재화 행동 문제, 비행과 공격성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외현화 행동문제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보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을 알아보았다.

아동의 행동 문제와 그 원인변인으로 선정한 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 기술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설적 연구모델에서 각각의 측정모델의 잠재변인에 대해 특정한 지표변수를 설정하였다. 즉 잠재변인인 아동의 행동문제는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를 지표변수로, 애착은 부 애착 안정성, 모 애착 안정성을 지표변수로,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은 정서인식 부족, 정서표현 부족을 지표변수로, 그리고 또래관계기술은 주도성, 협동/공감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4개의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 1개의 구조모델(Structural model)이 존재하는 구조회귀모델(Structural Measurement Model)이 통계적 검증모델로 설정되었으며, 구조회귀모델의 2단계 검증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4개의 측정모델에 대한 부합도

추정단계와 1개의 구조모델에 대한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단계로 나누어 모델검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19.0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변인들 간의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왜도 및 첨도)이 충족됨에 따라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모델 및 구조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 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chi^2$ 값,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변인인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매개효과 추정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 주요 변인들의 상관행렬과 기술 통계치

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과 행동문제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호 상관행렬을 추정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통계적 검증모델인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19.0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 하의 8개 지표 변수들에 대한 다변량정규 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의 왜도와 첨도

표 1. 측정 변수 간의 상관 행렬 표 및 기술 통계치

		1	2	3	4	5	6	7	8
애착	1. 부애착	-							
	2. 모애착	.83**	-						
정서 능력	3. 정서인식 부족요인	-.59**	-.61**	-					
	4. 정서표현 부족요인	-.47**	-.48**	.68**	-				
또래 관계	5. 주도성	.39**	.36**	-.43**	-.46**	-			
	6. 협동/공감	.55**	.57**	-.58**	-.48**	.54**	-		
행동 문제	7. 내재화	-.48**	-.48**	.55**	.54**	-.49**	-.55**	-	
	8. 외현화	-.47**	-.47**	.46**	.34**	-.32**	-.50**	.72**	-
	사례수	327	327	327	327	327	327	327	327
	평균	94.63	96.51	17.33	18.67	23.78	31.09	49.40	48.47
	표준 편차	19.50	19.50	5.94	6.36	5.84	5.75	9.70	10.62
	왜도	-.87	-.85	.62	.81	.13	-.55	.71	.67
	첨도	.39	.12	-.05	.67	-.77	-.77	1.31	.97

\*\*  $p < .01$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 모델의 부합도 검증**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의 모델 추정 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11; 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 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내주는  $\chi^2$  부합도 지수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각 부합도 지수의 대략적인 기준은 CFI나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부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부합도, .10이하이면 보통 부합도, .10이상이면 나쁜 부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89).

검증 결과, 부합도 지수가  $\chi^2=51.69$ ,  $df=14$   $p=0.003$ ; CFI=.98; TLI=.95; RMSEA=.09 로 나타났다. CFI나 TLI는 .90이상으로 좋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보통(mediocre fit)인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2).  $\chi^2$ 부합도의 경우 다소 낮게 부합되지만,  $\chi^2$ 값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은 받는 지수이며, CFI, TLI, RMSEA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고 있어 측정모델을 양

표 2 측정 모델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CFI	RMSEA
측정모델	22	14	51.69	3.69	.95	.9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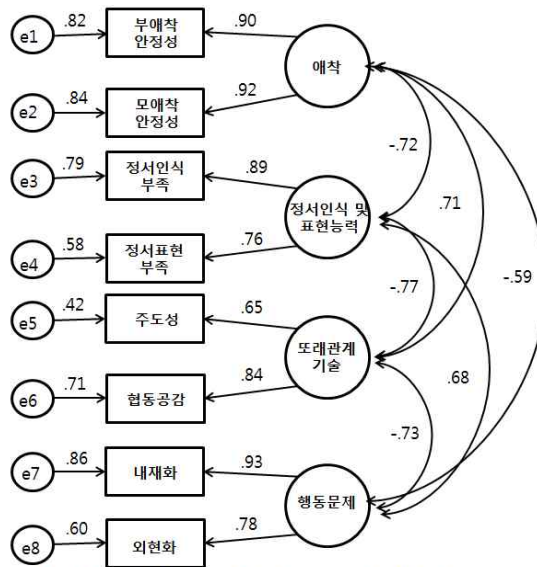


그림 1. 애착, 정서인식 부족, 또래관계기술, 행동문제의 측정모델

호하게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의 측정모델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동문제와 애착의 상관계수( $r=-.59, p<.01$ )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아동의 행동문제와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의 상관계수( $r=.68, p<.01$ )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아동 행동문제와 또래관계기술의 상관계수( $r=-.73, p<.01$ )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과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의 상관계수( $r=-.72, p<.01$ )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애착과 또래관계기술의 상관계수( $r=.71, p<.01$ )는 정적상관을 나타낸다. 셋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의 상관계수는( $r=-.77, p<.01$ ) 부적상관을 나타낸다.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그림 1),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 부하량이 평균 .8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평균이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측정하고자하는 잠재변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문수백, 2009)는 주장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

델은 수렴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정도를 검토한 결과,  $-.59 \sim .77$  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잠재변인들 간의 변별 타당도를 위해  $.85 \sim .90$  이하가 되어야 한다(Kline, 2011)는 주장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델들은 변별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측정모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검증

측정모델의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델의 모델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 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측정방법을 통해 초기연구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표 5), 모델 하의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표 3. 초기 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애착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22	.02	-13.21	**	-.72
애착 -> 또래관계기술	.07	.02	3.58	**	.32
애착 -> 행동문제	-.02	.04	-.515	.61	-.04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행동문제	.43	.18	2.47	*	.28
또래관계기술 -> 행동문제	-1.06	.28	-3.83	**	-.49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또래관계기술	-.39	.07	-5.36	**	-.54

\*\* $p < .01$ , \* $p < .05$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초기모델 안에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착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C.R = -.515, p > .05$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연구 구조회귀모델에

서 애착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직접경로를 삭제시킨 후 수정모델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초기 구조회귀모델에서 애착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로를 삭제하고 그림 3과 같이 구조회귀모델을 수정한 다음, 초기 연구모델과 수정 연구모델 간의 부합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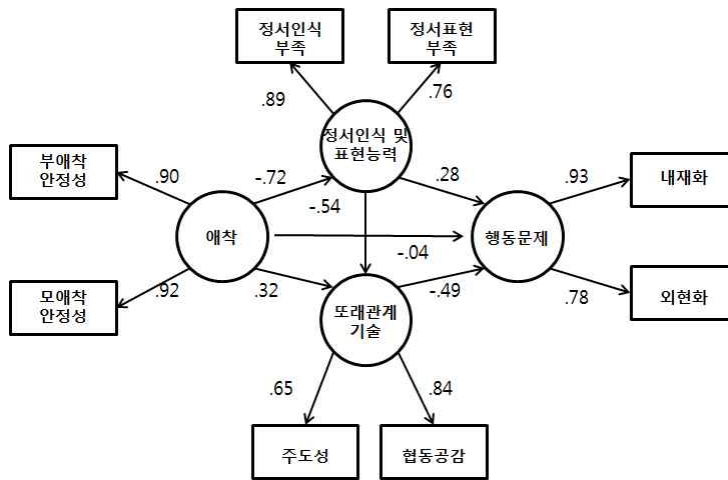


그림 2. 애착, 정서인식 부족, 또래관계기술, 행동문제의 초기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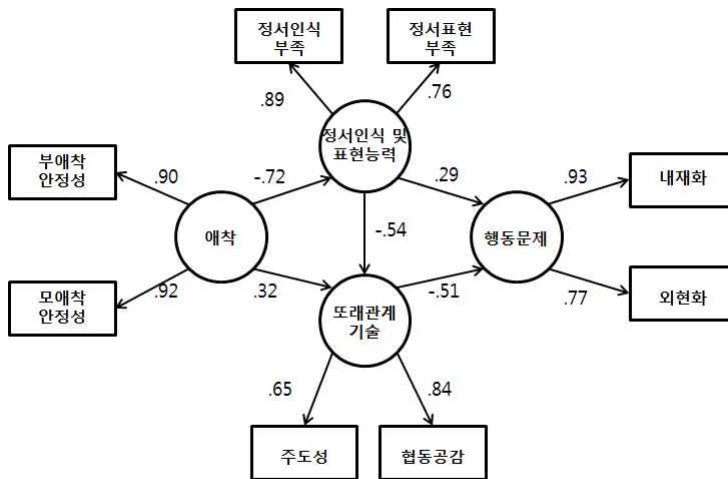


그림 3. 애착, 정서인식 부족, 또래관계기술, 행동문제의 수정 모델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 모델의 부합도가 초기 모델의 부합도 보다 0.24 ( $\chi^2_D = 0.24$ ) 만큼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델의 간명성은 1만큼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초기 연구 모델보다 수정 연구모델이 더 간명하고 부합도가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초기 연구모델에서 애착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경로를 제거한 수정 연구모델을 본 연구의 최종모델로 선정하였다.

표 4. 모델 비교

모델	df <sub>D</sub>	$\chi^2_D$	p
초기	1	.24	.62
수정			

p < .05

표 5. 모형 검증 부합도 지수 비교

모형	NPAR	DF	CIMN	NC	TLI	CFI	RMSEA
1. 초기 모형	22	14	51.69	3.69	.95	.98	.09
2. 수정 모형	21	15	51.93	3.46	.95	.98	.08

표 6.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애착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22**	-.22**	.00	-.72**	-.72**	.00
애착 -> 또래관계기술	.15**	.07**	.08**	.71**	.32**	.39**
애착 -> 행동문제	-.27**	.00	-.27**	-.57**	.00	-.57**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행동문제	.88**	.46*	.43**	.57**	.29*	.27**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또래관계기술	-.38**	.38**	.00	-.54**	-.54**	.00
또래관계기술 -> 행동문제	-1.11**	-1.11**	.00	-.51**	-.51**	.00

\*\*p < .01, \*p < .05

### 수정 모델의 부합도 검증 결과 모수치 추정 결과

수정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최종 구조회귀모델의 전체 효과, 직·간접 효과의 모수치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beta = .29, p < .05$ ),과 또래관계능력( $\beta = -.51, p < .01$ ),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beta = -.72, p < .01$ ),과 또래관계기술( $\beta = .32, p < .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또래관계능력을 매개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 $\beta = .27,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애착 안정성은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능력을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 $\beta = -.57,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애착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또래관계기술 각 변인의 매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매개효과 추정 및 검정 결과, 애착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 행동문제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beta = .10, p < .05$ ), 애착 → 또래관계기술 → 행동문제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 .08, p < .05$ ).

마지막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전체효과는 애착( $\beta = -.57, p < .01$ ),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beta = .57, p < .01$ ), 또래관계기술( $\beta = -.51, p < .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의 관련 변인으로 아동의 애착 안정성,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그리고 또래관계 능력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로 구성된 구조회귀모델을 선정한 후,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에 대한 2단계 검증절차로 나누어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측정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2), 모수치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서도 모든 모수치들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1), 본 연구의 측정모델, 즉 측정도구들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초기 구조회귀모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었다. 초기 구조회귀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는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표 5), 모수치의 경우 애착 안정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따라서 이 경로를 삭제하여 보다 간명한 모델로 연구모델을 수정하였다. 수정 모델은 초기 연구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더 간명하고 부합도가 높은 모델로 평가되어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델로 선정되었다(그림 3).

최종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기술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이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의 정서인식 및 표현의 어려움이 우울, 불안, 신체 증상들과 관련되어 있으며(Garber, Zeman, & Walker, 1990),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의 부족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낮은 학업 성취 능력, 심리학적 부적응, 신체적 허약함-와 관련되어 있는(Garber, Braafladt, & Zeman, 1991)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행동문제와 정서 능력의 관련성이 제기 되고 있다.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많은 수가 평균에 이

르는 양호한 지능을 가졌음에도 빈약한 정서 언어 능력을 가지며 정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최은실, 2010). 우울증과 품행장애 아동청소년의 정서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이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고(Rude & McCarthy, 2003), 정서의 표현과 억제에 대한 양가성이 높게 나타났다(King & Emmons, 1990). 또한 품행문제가 있는 아동은 정서적 어휘를 인식하는 능력이 낮았고, 특히 부정적인 정서 자극에 대한 이해에서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정서 능력의 핵심적인 요소인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은 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잘 아는 것은 심리적 통찰에서 매우 중요하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Saarni(2000)는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현화 증상이 높는데 그 이유는 낮은 정서인식능력이 정서경험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Cole, Michel, & Teti(1994)도 아동기의 역기능적 정서 패턴은 이후에 정신 병리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또래관계능력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반면, 또래관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고, '대인관계 문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우울, 불안과 위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허수연, 강수연, 정정은, 박지연, 2010)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행동문제를 가진 대부분의 아동은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우울, 위축과 같은 내현화 문제와 공격성, 불 순응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가진 아동은 또래 거부, 사회적 고립, 높은 문제 행동 발생률과 관련이 높다(Wu, Lo, Feng, & Lo, 2010). 그러므로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적응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동의 행동문제의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애착 안정성이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아동의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표상들은 이후의 그 사람의 내적작동모델이 되어 전 생애를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Harmmen, Burge, Shannon, Davila, Paley, & Rudolph, 1995)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주 양육자가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고 아동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을 자연스럽게 수용해준다면 아동은 모든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 표현을 비판하거나 거부 및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이는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Thompson, 2000). 즉, 안정 애착을 가진 아동은 불안정 애착 아동보다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도 더 많이 표현하는데, 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이를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의미다. 정서의 표현에서 안정 애착 아동이 더 많은 정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머물게 하고 표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최은실, Bost, 2012).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은 아동의 정서 인식, 정서의 조절된 표현 등 인간 간의 다양한 정서 능력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사료되며 경험적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Kochanska, Aksan, & Carlson, 2005; Salovey, Mayer, Goleman, Turney, & Palfai, 1995).

그리고 애착이 또래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 안정성이 또래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Cohn, 1991)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되는데, 아동은 많은 사회적 기술을 가족에게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Grusec, & Lytton, 1988),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늘어난다. 즉, 부모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며(Grossman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Scheuerer-English, & Zimmermann, 2002),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애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긍정적으로 발달한다(Belsky, 1984). 부모의 애착 안정성은 아동기를 넘어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걸쳐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유은희, 1991).

이렇듯 아동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 안정 애착 아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타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아들보다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정의적 특성인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의 형성 및 발달에 가정환경 변인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부모-자녀관계를 개선시키는 중재(intervention) 개발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셋째,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은 아동의 행동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동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다시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핵심이며(Salovey, Brackett, & Mayer, 2004),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는 정서처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Halberstadt, Dunsmore, & Denham, 2001)과 일치한다.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감정 피드백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서적 사건과 정서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유능해질 수 있게 된다(Denham, Zoller, & Cochoud, 1994). 또한, 또래관계의 기제로 정서인식 능력과 정서표현 능력을 주장한 연구결과들(Salovey & Mayer, 1990; 김선주, 2002; 권진희, 2006)은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가용하게 하는 등 대인관계 측면과 행동문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애착 안정성은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을 통해서 아동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연구 모델과는 달리 최종 연구모델에서는 애착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직접적인 경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Sable, 2000; Lamb, Thompson, Gardner, Charnov, & Connell, 1985)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의 차이는 동일한 잠재변인에 대해 각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조작적 정의의 차이로 인해 잠재변인이 구성하는 지표변수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에 형성된 애착 안정성이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변화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결정론적(determination) 입장보다는, 애착이 성장과정 속에서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매개로 하여 행동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행동문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아동기에 부모-자녀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면 아동의 정서, 사회적 능력은 저하되고 행동문제는 증가하게 될 것(Lamb, Thompson, Gardner, Charnov, & Connell, 1985)이라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과 또래관계기술이 더 높아지고, 다시 이것은 아동의 행동

문제를 낮춰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변인(애착 안정성)과 개인변인(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또래관계기술)이 모두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개입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적 접근을 통해 부모애착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확인하였고, 잠재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기술 및 설명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행동문제를 통제 및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들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직·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 변인으로 정서인식 및 표현, 또래관계기술을, 환경 변인으로 부모애착 안정성을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모델만으로 아동의 행동문제 전체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표변인을 두 개씩 선정하여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표변인을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애착 안정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연구모형 검증과정에서 기각되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애착 안정성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원인변인들과 다른 원인변인들을 조작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애착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Eisenberg, Guthrie, Fabes, Shepard, Losoya, & Murphy, 2000; 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아동의 행동문제의 예측변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밝힌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참고문헌

권진희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주 (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보건복지부 (2007). 정선보건센터가 청소년 정신 건강문제 도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손지영 (2003). 공격신념과 정서조절능력이 공

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보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연구, 11(2), 96-110.

신현균 (2010). 신체형 장애. 서울: 학지사.

양윤란, 오경자 (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61-971.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고위험 비행청소년들의 역기능적 정서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13.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화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최은실 (2010).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은실, 방희정 (2010). 초등학생의 우울과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91-110.

최은실, Bost, K. (2012).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및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33(2), 55-68.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각과 행동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

- 위논문.
- 한유진 (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허수연, 강수연, 정정은, 박지연 (2010).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증재에 대한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43-72.
- 홍경자 (1986). 초등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rowne, M. W., & Cudeck, R. (1989). Single sample cross-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4, 445-455.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Cassidy, J. (200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Cohn, L. D. (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52-266.
- Cole, P. M., & Kaslow, N. (1988). Interactional and cognitive strategies for affect regulation: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childhood depression. In L. Alloy (Eds.),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pp.310-343). New York: Guilford.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 social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Shepard, S., Losoya, S., & Murphy, B. C. (2000).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from atten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71, 1367-1382.
- Eisenberg, N., Hofer, C., & Vaughan, J. (2007). Effortful control and its socioemotional consequences. In J. J. Gross (Eds.),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NY: The Guilford Press.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ls of linkage*. Hillsdale, NJ: Erlbaum.
- Farmer, T. W., & Cadwallader, T. W. (2000). Social interactions and peer support for problem behavior. *Preventing School Failure, 44*, 105-109.
- Forness, S. R., & Kavale, K. A. (2000).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E/BD terminology and definition. *Behavioral Disorders, 25*(3), 264-269.
- Garber, J., Braafladt, N., & Zaman, J. (1991). The regulation of sad affect: An information-processing perspective.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ber, J., Zaman, J., & Walker, L. S. (1990). Recurrent abdominal pain in children: Psychiatric diagnoses and par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648-656.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 301-337.
- Grusec, J. E. & Lytton, H. (1988). *Social Development*. Springer-Verlag.
- Halberstadt, A., Dunsmore, J., & Denham, S. A. (2001). Spinning the pinwheel, together: More thoughts on affective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10*, 130-136.
- Harmmen, C. L., Burge, D., Shannon E., Davila, J., Paley, B., & Rudolph, K. D.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3), 436-443.
- Kauffman, J. M. (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N. Y.: Macmillan.
- Kerr, M. M., & Nelson, C. M. (2006). *Strategies for managing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Guilford Press.
- Kochanska, G., Aksan, N., & Carlson, J. J. (2005). Temperament, relationships, and young children's receptive cooperation with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1*, 648-660.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934-949.
- Knapp, M., Almond, S., & Percudani, M. (1999). Cost of schizophrenia. In Maj, M., Satorius, N. (eds.). *Evidence and Experience in Psychiatry*. London, John Wiley and Sons.

- Lamb, M. E., Thompson, R. A., Gardner, W., Charnov, E. L., & Connell, J. P. (1985). Infant-mother attachment: The origin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Strange Situation: Its study and biological interpreta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7, 127-147.
- Merrell, K. W. (2010). Linking prevention science an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e Oregon resiliency project. *Psychology in the Schools*, 47(1), 55-70.
- Nowicki, S. Jr., & Duke, M. P.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nonverbal communication of affect: The Diagnostic Analysis of Nonverbal Accuracy Scal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 9-35.
- Penza-Clyve, S. & Zeman, J. (2002). Initial Validation to the Emotion Expression Scale for Children(EESC).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540-547.
- Rude, S. S., & McCarthy, C. T. (2003). Emotional functioning in depression and depression-vulnerable college students. *Cognition and Emotion*, 17, 799-806.
- Saarni, C. (2000). Emotional compet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R. Bar-on, & J. D. A. Parker(Eds.),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Jossey-Bass.
- Sable, P. (2000). Attachment, ethology and adult psychotherap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 3-19.
- Salovey, P., Brackett, M. A. & Mayer, J. D. (2004). *Emotional Intelligence: Key Readings on the Mayer and Salovey Model*. New York: National Professional Resource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eman, S. L., Turney, C., & Palfai,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PA.
- Shaver, P. R., & Mikulincer, M. (2010). An attachment theory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interpersonal behavior. In L. M. Horowitz, & S. Strack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logy*. New Jersey; Wiley.
- Steel, H. & Steel, M (1998). Attachment and Psychoanalysis: Time for a reunion. *Social Development*. 7(1), 92-119.
- Thompson, R. A. (2000). The legacy of early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71, 145-152.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Office of Special Education data analysis system (DANS)*. Retrieved August 24, 2006, from <http://www.ideadata.org>
- Weinfield, N. S.,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A. (1999). The nat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J. Cassidy & P. Shaver (Eds.), *Handboof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u, C., Lo, Y., Feng, F., & Lo, Y. (2010). Social skills training for taiwanese students at risk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6, 1-16.
- Yell, M. L., Meadows, N. B., Drasgow, E., and Shriver, J. G. (2011) 곽승철, 임경원, 변찬석, 박계신, 황순영 역. 증거기반 실재를 통한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교육과학사
- Za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n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원 고 접 수 일 : 2012. 06.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8. 24.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8. 28.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of Children,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Social Ability and Behavioral problems

Eun-Sil Choi

Department of Psychotherapy, Kyungil University

Sun-A Jung

Dong-Jak aiz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chool-age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ttachment,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and social abilit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72 Children in 5<sup>th</sup> and 6<sup>th</sup> grade randomly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MOS 19.0. The results showed that: 1)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and social ability were found to affect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2) attachment were found to affect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and social ability; 3)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were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mediated by social ability; 4) attachment were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mediated by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y or social ability.

*Key words* : attachment, emotional identification, emotional expression, social ability, behavioral problems, mediation model